

사회

해적에 빼앗긴 남편 '눈물의 추석'

삼호드림호 선장 김성규씨 피랍 170일째 ... 가족들 "제발 무사귀환 하길"

"해적에 붙잡힌 남편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명절 기분이 나겠어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 뿐이에요."

광주시 남구에 사는 '삼호드림호' 선장 김성규(56)씨의 아내는 추석이 다가오면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있는 남편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 피랍 170일째를 맞은 지난 19일 그녀는 "이제 속이 다 타 버려 더 이상 탈 것도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초 우리나라 선원 5명과 필리핀인 19명이 탄 31만9360t급 원유 운반선 '삼호드림호'를 이끌고 한국을 떠난 김 선장은 지난 4월 4일 이라크에서 미국 루이지애나로 항해하던 중 인도양에서 소말리

아 해적에 피랍됐다. 이후 소말리아 중북부 항구도시 호비오 연안에 억류돼 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거액의 '몸

"소말리아에 억류... 협상 지지부진 속 타

명절 다가오니 남편이 더욱 보고싶네요"

값'을 받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삼호드림호 선사인 삼호해운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그녀의 불안감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그녀는 "요즘 남편과 함께 피랍된 우리나라 선원 가족들과 대부

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미 피랍 가족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도 꾸렸지만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이

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지만, '삼호드림호' 선원 가족들은 사랑하는 남편·아빠를 그리워하며 쓸쓸한 추석을 맞이하고 있다.

그녀는 이번 추석 명절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낼 예정이다. 두 자녀를 뒀지만 모두 타지에 있는데, 무엇보다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족끼리 모여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조금은 알 것 같다"며 "주변의 관심이 고맙지만 이러한 관심이 되레 협상을 어렵게 하는 것은 씁쓸하지 못했는데, 이번 추석 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서중·일고 동창생들이 보낸 편지 300통

"추석선물처럼 우리곁에 돌아오게나"

"성규 자네는 남자 중의 남자, 그것이 마도로스 아닌가. 몸과 마음이 감동있는 공포와 고통은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잔인할 텐데... 친구들이 마음 보따리라도 만들어 전달한다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겠는가."(이광현의 '친구 성규에게 보내는 300통의 편지' 중)

광주 서중학교와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난 16일부터 인터넷상에서 동문인 '삼호드림호' 선장 김성규씨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300통 편지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 서중·일고 48회 동창생들이 기획한 이 행사에서 동문들은 댓글 편지를 쓰며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이날 현재까지 참가자와 조화자 수는 300건을 넘고 있다.

이승우(56)씨는 "편지 띄우기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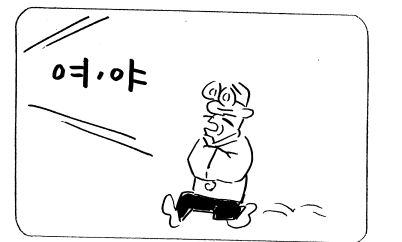
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성규가 무사히 돌아 올 수만 있다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며칠 밤을 지새워서라도 대신해 다녀 올 것"이라고 적었다.

정성채(55)씨는 "그동안 네(성규) 일인 줄 전혀 몰랐는데,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썼다. 박산수(56)씨는 "며칠 전 성규 아내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고 있다는 말에 너무 고마워했다"며 "친구가 추석 선물처럼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보태자"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김혁중(56)씨는 "슬픔에 잠겨있을 가족들에게 우리의 뜻을 담아 편지를 한다면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124) 김장동



'법정 거짓말' 위증사범 급증

광주지검 을 157명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정착으로 법정 진술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증사범은 되레 증가하고 있다.

19일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노상길)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광주·전

남에서 '법정 거짓말'로 기소된 위증사범은 157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7명)보다 6.8%(10명) 증가한 것으로,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 속에서도 위증사범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광주·전남의 위증사범 기소자 가운데 33.1%(52명)를 직

접 단속해 전국 평균 검찰 단속비율(23.3%)을 크게 웃돌았다.

광주지검의 위증사범에 대한 직접 단속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검찰의 위증 근절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증은 검·경의 수사력 낭비와 재판 불신 등 큰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인해 법정 진술의 중요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자영업자 이모(66)씨는 노래방에서 여자 도우미를 불렀는데도 부르지 않았다고 허위증언하고, 동료에게도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4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씨는 노래방에서 술값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끈에 불법영업으로 신고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업주가 재판을 받게되자 업주를 두둔하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또 지난 2월에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한 투자금 사기사건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위증한 혐의로 중년 손모(여·54)씨 등 13명(3명 구속)이 기소되기도 했다.

광주지검 이근주 차장검사는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



지난 1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상가 2층에 문을 연 아시아 전통음식점 '무지개마을'에서 손님들이 아시아 3개국의 음식을 맛보고 있다.

"아시아 3개국 전통음식 맛 보세요"

양동시장 '무지개마을' ... 다문화가족들 각국 음식 5000원 선 제공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전통음식 맛보러 오세요."

지난 1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상가 2층에 문을 연 아시아 전통음식점 '무지개마을', 80여석 규모의 식당에서 베트남 출신 홍란(여·31)씨 등 다문화가족 10여명은 손님들에게 제공할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이날 개장한 '무지개마을'은 광주

시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련한 일본·중국·베트남 등 3개국 전통음식점이다.

음식점 주인들은 식당 안에서 각각 면을 삶고, 고기를 손질하는 등 손님에게 선보일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특히 이 곳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각 나라에서 공수해온 향신료와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의 부인과 함께 일본음식 코너를 연 재일교포 2세 하야시(52)씨는 "우들의 주재료인 면을 직접 반죽하고 삶기 때문에 어느 일본음식점보다 맛이 좋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바로 옆 중국음식 코너에서 돼지고기를 썰며, 물만두를 만들고 있던 중

국 출신 두백령(여·33)씨는 "한국만 두와는 또 다른 중국 만두만의 매력적인 맛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무지개마을'에 입점한 일본·중국·베트남 음식점에서는 각각 우동, 물만두, 쌀국수 등 각국의 전통음식 10여종을 5000원 선에서 맛볼 수 있다. 특히 이 곳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각 나라에서 공수해온 향신료와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날 개장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장을 보러 나왔다가 '무지개마을'을 찾은 김지은(55)씨는 "아시아 3국의 요리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곳이 생겨서 반갑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동신대 간호학과 62대 1

광주·전남지역 대학 수시

수험생들의 선택은 올해도 역시 취업 잡되는 의료·건강 관련 학과였으며, 일부 학과는 무려 60대 1을 넘어 마치 공무원 취업 시험을 방불케 했다.

광주지역 주요 대학들이 지난 17일 수시(1차 또는 최종) 모집을 마감한 결과, 동신대 간호학과는 5명 모집에 무려 310명이 몰려 62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여대와 광주대 간호학과도 각각 36대 1, 34.9대 1을 보였다.

이와 함께 동신대 한의예과가 26.2대 1, 물리치료학과 22.5대 1, 방사선학과 10.5대 1로 의료 분야가 학과에 대한 지원율이 높았다. 광주여대도 치위생학과 14.3대 1, 물리치료학과 13대 1이었다. 광주대는 유아교육과(8.28대 1), 호텔경영학과(6.95대 1)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1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은 ▲광주교대 6.53대 1 ▲광주여대 5.35대 1 ▲동신대 4.8대 1 ▲광주대 4.04대 1 등이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9분 / 해질 18시 33분 / 달돋이 16시 46분 / 달질 03시 16분

따스한 고향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점차적어짐	20/30℃
목포	구름점차적어짐	20/28℃
여수	구름점차적어짐	22/28℃
완도	구름점차적어짐	20/30℃
구례	구름점차적어짐	18/30℃
해남	구름점차적어짐	20/30℃
장흥	구름점차적어짐	20/30℃
고흥	구름점차적어짐	19/30℃
순천	구름점차적어짐	20/30℃
영광	구름점차적어짐	19/28℃
전도	구름점차적어짐	20/30℃
전주	구름점차적어짐	19/29℃
남원	구름점차적어짐	16/29℃
옥산도	구름점차적어짐	20/2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날씨						
최저/최고	20/28	19/26	17/25	15/24	15/24	17/24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하나SK카드

5437 0729 5678 4032

HANASK KEN SHIN YONG

카드 앞면 50%할인 / 영화 연간 20%할인 / 주유, 마트, 배달 2천원 할인 / 학원, 마당 1만원 할인

소중한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호남 최대 7·9급 공무원 시험 전문학원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 앞 062)234-0234